



즉시 배포용: 2017 년 3 월 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수제음료 산업 규정 개혁 덕분에 업계가 약 1,500 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

(i) 2012 년 이후 생산업체들이 1,200 만 달러를 절세하도록 해준 알코올 생산 세액공제 (Alcohol Production Credit), (ii) 2013 년 이후 생산업체들에게 220 만 달러의 수수료를 면제해 준 브랜드 상표 규정 (Brand Label Registration)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수제음료 업계가 2012 년 이후 이 급성장하는 분야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약 1,500 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들로 인해 맥주 양조장, 와인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등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 지역의 수제음료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해당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뉴욕의 수제음료 생산업체들이 세계 최고의 맥주, 와인, 사과주, 증류주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번창해가며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부담스러운 규정들을 철회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점점 더 발전하는 이 업계의 미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업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

수제음료 생산업체는 Cuomo 주지사가 시행한 추가 규정 및 입법 변경의 결과로 상당한 비용 절감을 실현했습니다. 와인, 증류주, 사과주 산업을 포함하기 위한 맥주 생산 세액공제 (Beer Production Tax Credit)에 대한 개혁으로 2012 년 이후, 생산업체들은 1,200 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맥주, 사과주, 증류주 생산업체들의 브랜드 상표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2013 년에 제정된 이후, 소규모 생산업체들은 220 만 달러가 넘게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 년의 뉴욕주 최초의 와인, 맥주, 증류주 회담에서 Cuomo 주지사는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에 마케팅 허가 수수료를 250 달러에서 절반 금액인 125 달러로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2 년 이후 154,000 달러 이상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마케팅 허가제는 수제음료 생산업체가 박람회, 거리 축제, 농민 직거래 시장 등을 포함한 오프 사이트 장소에서 시식행사와 판매의 시행을 허용합니다.

절세

2016년 과세 연도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산 [와인, 증류주, 사과주 업계](#) 등이 포함되도록 맥주 생산 세액공제 (Beer Production Credit) 품목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알코올 생산 세액공제 (Alcohol Production Credit)라고도 불리는 이 세액공제가 2012년에 발효된 이후, 수제음료 생산업체들은 1,200만 달러를 절세했습니다. 세액공제 품목의 확장으로 인해 업계는 연간 3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들이 해당 사업과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매년 6,000만 갤런 이하의 맥주 또는 사과주, 2,000만 갤런 이하의 와인, 80만 갤런 이하의 주류를 생산하는 수제음료 업체가 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생산 세액공제 외에도 맥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와인 양조주, 증류주 양조장에서의 시음에 대한 이전의 판매세 면제가 알코올 음료 세금에 적용되기 위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맥주 양조장의 수제 맥주가 생산되는 [시설에서 시음 행사](#)가 열리는 경우, 해당 맥주 양조장은 시음 행사에 제공되는 맥주나 병, 모자, 포장에 사용된 상표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Vincent Bradley 주립 주류관리청 (State Liquor Authorit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Cuomo 주지사님은 수제음료 생산업체에 대한 세금, 수수료, 전반적인 규제 부담을 줄임으로써 뉴욕의 수제음료 산업을 확대시키겠다는 주지사님의 공약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난 6년 동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수백 곳의 새로운 소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경제 개발,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Nonie Manion 조세재무부 (Taxation and Financ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시행한 세제상 인센티브는 수제음료 산업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번창하여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 (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제음료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주지사님의 공약은 농장 기반 음료 생산업체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농장에서 많은 재료를 조달하도록 해서 영농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생산업체들이 수년간 실현한 비용 절감 덕분에 생산업체들은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아래, 약 1,000 건의 생산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600 곳이 넘는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 등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2010 년 195 곳이었던 뉴욕주의 와인 양조장 수는 현재 322 곳으로 65 퍼센트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 농가 양조장의 수 또한 2010 년 10 곳에서 110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 년의 맥주 양조 농장 면허와 2014 년의 사과주 양조 농장 면허를 비롯하여 2011 년 이래로 2 개의 새로운 면허가 신설되어, 맥주 양조 농장 150 곳과 사과주 양조 농장 28 곳이 설립되도록 이끌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